

# 중생 있는 곳엔 부처님도 있다

일광삼존불(日光三尊佛)의 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67세 때 비사리국 암라수원(菴羅樹園)의 대립정사(大林精舍)에서 설하신 <정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일광삼존불상은 아미타불과 좌우보처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함께 조성한다.

일본의 장야현 선광사(善光寺)에 모셔진 일광삼존불상은 백제 성왕이 서기 552년에 일본의 흥명천황(欽明天皇)에게 보낸 것이다. 백제에서 봉송될 당시에는 '석가불금동상'이라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선광사여래'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왕은 삼존불을 보내면서 "서방(중국)의 성인들은 깨우치지 못했지만, 오직 깨달은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뿐이다"라는 편지를 함께 보냈다고 한다.

효란 스님은 10년 전 일본에서 발간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일광삼존불의 유래와 신앙>을 한글판과 일본어판으로 펴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이 모시다가 일본으로 봉송했던 삼존불상의 분신불을 조성해 1983년 서울 서원사에 모셨다. 분신불의 조성에는 일본 진종다카다파의 고승들이 정재(淨財)를 내놓았다.

"인도에서 백제로 비래(飛來)한 삼존불이 다시 인도 땅으로 가실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9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스님들이 입회한 가운데 국내에서 일광삼존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네발의 카트만두에 세워진 일본 정토진종 본원사에 모시게 됐습니다."

효란 스님이 이 불사를 주도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원이 성취되어 모든 업보중생이 성불할길 바라는 원력 때문이었다.

### #강의 하다가 죽어도 좋다

효란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강의 요청이 오면 달려가신다. 법회에서 법문하는 것 보다는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법문은 일회성이기 쉽지만 강의는 텍스트(주요 정토삼부경)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속 나이가 90인데도 매주 수요일 연천에서 분당 암미타사(前약사암)까지 강의를 하러 가신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강의는 <무



량수경>을 마무리하고 곧 <관무량수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효란 스님은 직접 펴낸 <정토삼부경강설>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신다. 두 말할 것 없이 정토신앙의 근본요체가 삼부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토삼부경 강설>을 선물로 주시곤 한다.

효란 스님은 경전을 귀하게 여기고 경전을 해석한 책 나눠 주기를 즐기신다. <정토삼부경 강설>의 서문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경전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경전을 소중하게 의지해 온 수많은 학승들의 노고가 있었다. 때로는 설산에서 동사(陳死) 직전에 이르기도 하고 빙하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노고와 참기 힘든 고독과 불굴의 정신이 이 많은 경전들을 인도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전했으며 열성적 역경사들에 의해 혼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 번역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봉사 뒤편 숲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1호인 오봉사지 부도가 있다. 효란 스님은 이 부도를 지금 한 정성으로 모신다. 초목을 베어내고 주변을 정갈하게 보존하고 있다. 오봉사의 역사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 또 효란 스님은 인근 심원사 부도밭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군사지역에서 방치된 부도밭을 인근부대 불자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정돈하고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기도 했다. 한 때 심원사 부도밭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존치하게 됐다고 한다.

역사적 연원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효란 스님은 정토신앙이 보다 넓게 확산될 때 인류와 만생이 이교득락할 열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봉사를 나와 임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37번 국도에 멈춰 섰다. 북한 지역의 산들을 배경으로 서쪽 하늘에 걸린 붉은 해를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저 황홀한 노을빛은 서방정토 극락세상의 한 풍경일 것만 같은데 우리민족은 분단되어 있다. 나무아미타불.

글·사진=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54. 태고종 승정 총담 대화상

총담(1913~1998) 대화상은 1913년 경기도 가평에서 성군관 박사 이승노씨 삼남으로 태어났다. 집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7세 때 삼각산 승가사 심월 스님께 득도하고, 봉은사 강원을 수료했다. 1943년 중국 연변에 들어가 독립지사들을 격려하다가 1944년 귀국, 왕십리에 승가사를 다시 짓고, 1956년 경기도 가평 호명산에 감로사를 창건하였다.

감로사에서 20하안거를 성만하고 <관무량수경>의 16관법 중 일상관(日想觀) 수행한 스님은 1962년 권상으로 스님 등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종관수호를 위한 7일 단식 철야정진을 했다. 1970년 7월 1일 태고종으로의 관할청 등록 당시 관등록 사항 1호 승가사를 종단에 회사하는 등 종단발전의 공로를 남겨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에 빛을 보았다. 스님은 항시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나이 들어 내 죽게 되면 이 몸 그대로를 부처님께 바치고 싶어"하고 말씀하셨다.

"약왕보살의 소신공양(懺身供養)은 명자 그대로 5분향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켜 율리도 덕의 향을 만들고, 선정과 지혜를



이 불공도리라 왔다가 발견하고 모두 다 숨겨버려 결행하지 못하고 단오제만 소리 없이 잘 지냈다. 스님은 단오제를 마치고 서울 승가사로 와서 생각하셨다. "옛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고 말하는 것이 생사라 하더니 생사 없는 곳에 적조영지(寂照靈知)한 것이 하늘까지 머금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눈도 청정하고, 귀도 청정하고, 코·혀·몸·뜻도 청정하니 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몸을 바치고 중생들을 위해 그 공덕을 회향하리라."

6월 27일(음력 윤 5월 4일) 새벽 다섯 시, 호명산 부처님께 다시 한 번 예를 올리고, 높이 장작더미에 올라 앉아 불을 붙이니 푸른 산꼭대기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올랐다. 조구 통일, 생로병사의 중생 제도, 불교계 화합홍통 등 세 가지 대원력을 세우고 소신공양의 원력을 성취하신 것이다. 가평 소방서 사람들이 엠버런스

### '한국의 포대화상'... 통일·중생제도·교계화합 발원 후 소신공양

받았다.

필자는 70년대 말 정두석 박사의 뒤를 이어 승가사 법회를 5년 동안 보았는데, 부대(富大)한 얼굴에 항상 싱글빙글 웃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포대화상'으로 불렸다. 귀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유리알처럼 맑았다.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만나기만 하면, "고맙네. 누가 불교를 위해 자네처럼 뛰는 사람 있는가. 우리 지성이도 좀 자네 같은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하셨다. 여름에는 하얀 모시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느리느리 밟아 걸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늘 엮뿔로써 대했기 때문에 왕십리 일대에서는 총담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스님의 아들 지성이 일찍이 출가하여 불교정신문화원 사무총장을 하면서 포교사 전문대학과 불교한방병원, 불교유치원을 잘 관리하였으므로 현대불교 포교

를 마련해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거기서 생긴 해탈지견으로 소신공양할 것이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공부를 더욱 깊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 내가 어려서 출가하여 이력도 보고 선방도 들렸지만 세속 인심에 저들어 번뇌머리가 되었지 뭐야. 그래서 상좌고 자식이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내 이제부터 정진하여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을 버리고, 수자상(壽者相)까지도 싹 털어 버릴테니 보라구."

그 뒤 스님은 행·주·좌·와·어·묵·동·정이 모두 선이고 열불이라 가든지 오든지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다.

1998년 5월 단오날 소신공양하시려고 청령 감로사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석유통을 미리 가져다 놓았는데, 신도들

를 몰아 달려갔으나 이미 스님의 법구(法鬘)는 한 줌의 재가 돼 앉은 자세 그대로 소화돼 있었다.

중생부도처(衆生不到處)에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이로다. 차문시하처(此間是何處)나 대적열반문(大寂涅槃門)이로다.

중생이 이르지 못한 곳에 따로 한 세계가 있으니 이 곳이 어느 곳인가 대적열반문이로다.

이것은 고려 때 진각 국사의 임종계이나 살아서 그 몸을 그렇게 회향하기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얀 모시옷에 백옥 같은 모습을 하고 왕십리 느리느리 밟아 걸어 오던 스님을 둘러보면 지금도 극락세계 문전에서 인로왕보살(閻路王菩薩)이 돼 있을 것이다.

##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일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중앙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보·구독·광고문의**

- 충북지사: 043-732-5560
- 대전지사: 042-223-8214
- 지사장: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ksson108@hanmail.net
- 기자: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일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현대불교신문 1인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위한 중생제도를 개발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하며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 나무아미타불, 열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세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는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된다.
- 활당저아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짬뽕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플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영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경북 구미군 소모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하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